

대구주보

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연중 제31주일 2016.10.30.(다해) 제2023호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_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신서성당 <사진 : 대구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 오늘의 전례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루카 19,8)

죄인 취급을 받던 세관장 자캐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가진 재산을 나눕니다. 지혜서 저자의 고백이 화답처럼 들립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제1독서 지혜 11,22—12,2 **제2독서** 2테살 1,11—2,2 **복음** 루카 19,1-10.

입당송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화답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답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나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태진석 요한 신부 | 연일본당 주임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가시자 수많은 환영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니 자캐오입니다. 그는 제국의 세금을 거두는 앞잡이였고, 동족에게 욕먹고 사는 사람이었으며, 외톨이였습니다. 친구는 없지만 돈이 친구였고, 돈이 뭐든 해결해줄 것이라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돈이 아쉬워지면 자기를 찾아와서 굶신거리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양심 속에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다고 하고, 예수님은 죄인에게도 잘해 주신다는 데 과연 그럴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앞질러 달려가서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비웃고 수군거리지만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그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 헤매시던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자캐오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자캐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신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약한 줄 알고, 너의 과거를 알고, 너의 그 마음을 안다. 네가 왜 나무에 올라가야 했는지를 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줘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미워하는데 예수님은 나와 친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이 까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를 잘 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야 할 그 사람입니다.

오늘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인생을 바꾼 사람은 단 한 명, 자캐오였습니다. 그는 돈만 믿으며 살아온 인생을 청산하고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자캐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눈치 챘으니까요. **골로**

가정, 가장 작은 교회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장소

강영목 요한보스꼬 신부 | 교구 가정담당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것을 두고 어떤 이는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는 아직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물 반 컵을 사람들은 왜 다르게 생각할까요? 어떤 이는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고 힘들어하며 벗어나려고만 하고, 또 다른 이는 긍정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저마다 다른 마음을 지닐 수 있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현대 가정에 대한 모습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여러 사건, 사고를 보도한 언론을 통한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은 늘 위기에 처해 있고, 곧 붕괴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정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늘 저마다 아픔이 있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가정들은 그 어려움마저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항상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다양해지는 가정의 형태와 그 안에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화 없는 가정, 신앙을 물려주는 기본자리가 되지 못하는 가정에 대한 모습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현상과 현 상황들에 대한 비판과 체념, 불평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변화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을 희망하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정에 대한 지난 2년에 걸친 세계 주교시노드의 결과물로 사도적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을 반포하셨습니다. 여기 7항에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은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 교황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원래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에 그 기쁨을 누려야 하고, 가정안의 사랑의 기쁨은 바로 교회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1항 참조). 똑같은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면 해결해야 하고 풀어야 하는 긴박감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을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다시 시작해 보려는 의욕과 더 잘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우리 가정 앞에 사랑의 기쁨을 누릴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는 희망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더 행복하다!

박성대 요한 신부 | 원로사제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한때 미국의 백만장자, 아니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53세에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행복이 없었다. 록펠러는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나이 55세에 이르러서는 의사로부터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 하루는 최후 검진을 받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갔다. 진찰 순서를 기다리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사도 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록펠러의 마음에는 전율이 생기고,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래서 록펠러는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저만치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직원과 어떤 부인이었다. 딸의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것이었다. 병원 직원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고 부인은 우선 입원해서 치료를 해 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것이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은밀하게 도와던 그 소녀가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나눔의 삶을 살았던 록펠러는 자서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였다. “저는 그 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10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하였고 1500여개나 되는 많은 교회를 지어 봉헌하였다.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산 록펠러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지는 몰라도 병이 회복되었고 세계 최고의 갑부로 98세의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참으로 감동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더 자세히 소개하면 이렇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이르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사도 20,35) 다시 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요약한 말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11월 위령 성월을 지내면서 죽음을 묵상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한다. 하늘에 재물을 쌓으면 도둑맞을 염려도 없고 쯤도 쓸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베품과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은 곧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필문**

교회에서 비롯된 교회 문화

할로윈(Halloween)

언제부턴가 10월이 되면 속을 파낸 큰 호박에 도깨비의 얼굴을 새기고, 안에 초를 넣어 도깨비 눈처럼 번쩍이게 만든 장식품인 ‘잭-오-랜턴’이라는 등불과 괴기스러운 다양한 소품들이 길거리와 쇼핑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할로윈 데이’라 불리는 서양의 축제를 앞두고 놀이공원이나 클럽에서는 파티나 이벤트가 열리기도 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지에서 퍼지기 시작한 할로윈 문화가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의 없는 장난과 어린아이들이 과자를 요구하는 소박한 축제지만, 할로윈은 원래 기원전 500년경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새해 첫날은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인데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죽은 영혼이 저승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악령들을 놀라게 해서 쫓아버리기 위해 무서운 괴물이나 귀신 복장을 했는데 이 풍습이 할로윈의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그 어원은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All Hallows Day)’로 정하면서 그 전날이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All Hallows’Eve)’가 되었고 이 말이 ‘할로윈(Halloween)’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켈트족의 이러한 풍습에 모든 성인 대축일의 의미를 더 부각시켰습니다. 즉 ‘죽은 이들이 돌아오는 날’에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기억하는 날’로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악령에게 음식을 주는 대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귀신 분장이 아니라 성인과 천사의 분장을 하고 성인의 유해나 유물을 운반하는 행렬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은 종교 개혁 이후 유럽 전역에 개신교가 퍼지면서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축제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다만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전해져 오늘날과 같은 할로윈 축제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할로윈은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나 사탕 등 간식을 나눠주는 풍습이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교회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칼럼**

교구 행사

■ 프랑스 순례단 신나무골 성지 미사



10월 17일(월) 오전 11시 신나무골 성지에서 프랑스 순례단 신나무골 성지 미사가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주례로 봉헌되었다.

■ 2016년 보좌신부 연수

10월 17일(월)부터 18일(화)까지 교구청 내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60여명의 보좌신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6년 보좌신부 연수가 열렸다.

■ 대구 가톨릭 미술가 100인전



사진제공 : 월간(빛)

‘대구 가톨릭 미술가 100인전’ 오픈식이 10월 22일(토) 오후 5시 드망즈 갤러리에서 조환길 대주교와 지역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 진목정 성지 순교자 기념성당 십자가 상량식

진목정 성지 순교자 기념성당 십자가 상량식이 10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4대리구 교구장 대리 원유술 신부의 주례로 거행되었다.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영화 『시간의 종말』 개봉

시간의 신비 속에 피어난 사랑
푸른 눈의 신부들은 왜 조선으로 떠나오게 되었을까?

개봉일: 11.3(목) / 상영관: 메가박스 대구, 동성아트홀

※ 본 주보 지참 시 1,000원 할인 (현장 발권에 한함)

2017 신앙다이아러리

하루하루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삶, 2017년도 대구대교구 신앙다이아리가 출시됩니다.

판매가: 12,000원(선 주문시 10,000원) / 예약기간: 10.24(월) ~ 11.11(금)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문을 활짝 열고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1월 2일(수) 19:00 근화여고경당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11월 5일(토) 11:00 성모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1월 5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	—	—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11.5(토) 10:00
 일정: 미사, 고해성사, 안수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문의: 진량성당, 856-7676

다락방 성소 모임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1:00
 장소: 텃밭포교베네딕도수녀회(대구)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8519-3431
 (010)9347-3431

교육 | 모집 | 기타

생명 평화 음악회

일시: 11.11(금) 18:00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254-2300
 출연: 성악 권순동, 고미진 외 다수
 전석 무료 초청입니다.
 주최: 대구종교인평화회의

대림 성탄 전례음악 세미나

일시: 11.6(일) 14: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강사: 최호영(사도 요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심)
 교재비: 1만원
 문의: 가톨릭음협, (010)8996-8675

대구ME주말_가정, 가장 가까운 교회

346차 ME주말: 11.18(금) 19:00~20(일)
 장소: 한티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부부는 작은 교회입니다.

2017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원서접수: 10.31(월)~11.11(금)
 학위취득: 논문석사과정 / 교과석사과정
 주최: 대가대 신학대학원(야간)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2017 대가대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0.31(월)~11.11(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유아교육대학원 신설)
 문의: 850-3583(일반)
 850-3505(교육) / 660-5512~3(특수)

2017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신입생 모집

전국 3번째, 한강이남 최초 64년 전통
 2015, 2016년 2년연속 약사시험 전원 합격
 병원약국, 제약공장 등 우수한 교육환경
 접수: 11.16(수)~18(금)
 문의: 850-2580, <http://ibsi.cu.ac.kr>

2017학년도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1.14(월)~18(금) 9:00~16:30
 대상: 2010.1.1.~12.31 출생아동
 조기입학자 및 취학의 무유예자 가능

학교교육 설명회: 11.8(화) 10:30
 문의: 효성초등학교, 720-5500

등지 축제 초대

일시: 11.5(토) 15:00~20:30
 장소: 군위 소보동지
 일정: 산책·기쁨·식사·폐제·미사
 대상: 누구나 / 회비: 1인 5천원
 신청: 소보동지, (010)9266-9995

양로 시설 어르신을 모십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행복한 공동체,
 하느님나라 복지의집 1인 1실 사용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주최: 성모애덕의집
 문의: (054)976-6219

2017학년 가톨릭상지대 신입생 수시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계 전문대학
 수시2차 모집: 11.9(수)~21(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
<http://ipsi.csj.ac.kr>

제49차 마신부님 아일랜드 영어연수

초·중·고: 2017.1.6~2.12(3, 5주 선택)
 대·일반: 2017.1.2~2.12(6주, 장기 선택)
 아일랜드·세계 학생들과 함께 수업
 후원: 카푸친작은형제회
 문의: 그린피시아엔티, (02)3446-4253

“일본성지순례”
 후쿠오카, 히라도, 나가사키
 *출발일: 11월 23일 (3박 4일) / 대구 출발·도착
T. (053)253-3399
 조 헬레(유스티노)
 홍 미희(안젤라)

백 신경외과 의원
 최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진전, 요통
 좌골신경통, 목, 허리 디스크,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페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내거리 ☎ 053)628-4111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한 뇌전증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개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백 합 식품
 샬트르성모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수녀원 메주, 된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대구 053)257-1771
 공장(자인) 053)857-2037
www.spcfood.co.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예원소아청소년과
 YEWON PEDIATRICS CLINIC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원장 이지현(프란체스카)
 대구 북구 대한남로6길 29, 2F T. 953-0405
 소아알레르기호흡기클리닉
 소아신경클리닉 | 예방접종
 영유아집진

튼튼속내과
 건강검진센터, 내과진료
 위, 대장 내시경 전문
 전문의/원장 박준모
TEL. 053)959-7585
 대구시 동구 신암로 80 3층(신암2동 우재국 옆)

자기주도학습전문
독서코칭 · 시험코칭
다중지능검사
UP학습코칭·논술
 윤종선(가밀로)
☎ 053)752-0966 범어동 KBS앞
NAVER 대구UP학습코칭 검색

위령의 날 미사

- 11.2(수) 10:00 교구청 성직자 묘지 (집전: 총대리 장신호 보좌주교)
- 11.2(수) 11:00 군위 묘원 (집전: 1대리교구장대리 황용식 신부)
- 11.2(수) 11:00 범물동 묘원 (집전: 교구 사무처장 박영일 신부)

행사 | 모임

제8회 교구 성경암송 발표대회

일시: 11.19(토) 14:00~17: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대강당
 자격: 대리구 대회 부문별 입상자
 문의: 교구 성서사도직, 250-3082

비산성당 위령의 날 미사

일시: 11.2(수) 11:00
 장소: 비산성당 낙산묘원
 집전: 김명현(디모테오) 신부

2016 대구성령봉사회 추수감사미사

일시: 11.6(일) 13:0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658차 2막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11.11(금) 13:00~13(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주교좌 범어대성당 봉헌 기념 음악회

일시: 11.21(월) 19:3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무료 입장)
 출연: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혜선 외 음대 교수진, 오케스트라, 합창단, 무용단
 문의: 대가대 음악대학, 850-3803

채용 | 안내

교구 청소년국 직원 채용

업무: 청소년국 제반 업무 1명,
 학생주보 등 디자인 업무 1명
 자격: 교리교사 3년 이상

상세내용 www.jesusclub.or.kr 참조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4

성서성당 여사무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마감: 11.5(토) / 문의: (010)3507-8664

한티성지 주방 직원 채용

분야: 주방장, 주방보조 각 1명(숙식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교구 법원 공시(253-9550)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형록, 정이슬, 박달진(베네딕도)

2017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2017년도 대구주보 광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서류접수: 10.31(월)~11.16(수)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1 차 순번추첨: 11.21(월) 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2 차 순번추첨: 11.21(월) 13:00 (당일 서류 제출 업체 대상)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 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자리배정을 문화홍보실에 일임하는 위임신청제는 접수 당일 광고 신청 배정 후 남은 자리에 **사전서류접수 순**으로 배정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053)250-3048~9)

대구평화방송(FM 93.1) 11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연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11월 5일 구암본당

11월 12일 성안드레아본당

11월 19일 왜관본당

11월 26일 정평본당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내시경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주)김스여형
 성모님의 걸음걸음
 스페인/포르투갈 12일, 산티아고 도보순례
 11월 21일,28일 / 12월 5일,12일 출발
 ☎ 1544-4655
 대표이사 김천훈(아우구스티노)
 김경숙(글로리아)

www.appleuro.com
에플비노기과
 비노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오로걸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의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www.baekduos.com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아개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밝은귀보청기
 세계 1-5위 미국·덴마크·독일 보청기
 서문점 동인점
 김은연 세실리아 최준우 미카엘
 ☎(053)257-8588 ☎(053)421-8588
 NAVER 밝은귀보청기 검색

참소중환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백내장수술, 근시교정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